

中 출산장려책 붓물에 “양육비부터...” 시큰둥

지난해 61년만에 인구 첫 감소
양회 앞두고 제안 잇따라
“27년 모아야 한 명 온전히 양육”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출산 장려 제안들이 잇따르지만, 중국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일 한때 중국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 ‘자녀 양육비’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 양회를 앞두고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들이 출산율 제고 방안을 건의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다시 이슈가 된 것이다.

누리꾼들은 작년 4월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각국 양육비 분석 보고서’ 내용을 거론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양육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백악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자녀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48만5000위안(약 9240만원)으로, 201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6.9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기준으로 1인당 GDP의 7.79배에 달해 세계 1위에 오른 한국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일본(4.26배)이나 미국(4.11배) 등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졸업시키기까지 드는 양육비는 62만7000위안(약 1억2000만원)으로 훨씬 더 많아진다.

한국과 중국의 양육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교육비와 보육비가 꼽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누리꾼들은 “자녀 출산을 고

민할 때 양육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까지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소도시라 하더라도 자녀의 집 장만과 결혼식 예물 마련 등에 60만~65만 위안이 든다”며 “자녀를 낳아 독립시킬 때까지 적어도 130만위안(약 2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95%의 월수입이 5000위안(약 95만원)으로 조사됐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주택 담보 대출이나 할부로 구매한 차량이 없더라도 1년에 4만8000위안(약 914만원)을 모으기가 빠듯하다”며 “27년을 악착같이 모아야 자녀 한 명을 온전히 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베이징 등 대도시라면 주택 마련 등에 훨씬 많은 돈이 든다”며 “한 명도 낳을까 말까 한데 출산 장려금 받겠다고 두 자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중국 인구는 작년 말 기준 14억1175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줄어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지방정부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 이상 가정에 최고 1만위안(약 190만원)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3살 때까지 매달 최고 1000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4월 개막하는 양회를 앞두고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제안도 잇따랐다.

양사오전 쓰촨성 정협 위원은 출산 관련 의료비 면제, 세 자녀 가정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인하를 건의했고, 주례위 광둥성 전인대 대표는 미혼 여성에게 기혼 여성과 동등한 출산 관련 권리 및 처우 인정과 네 자녀 출산 허용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본토 드론 공격당한 리,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 압박 강화

모스크바 110km 앞까지 타격
젤렌스키 “전투 강도 거세져”

대통령 고문 “전략적 후퇴도 고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가 압박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곳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거듭 말하는 가운데 바흐무트에서 전략적 후퇴를 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최전선의 전투가 격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수도 모스크바 인근 등 본토 곳곳에 드론(무인기)이 나타나 일부 기반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공격 책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침묵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국민을 단합하기 위해 드론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일(현지시간) AP와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바흐무트 전투가 갈수록 격렬해져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곳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흐무트다. 러시아는 숫자에 상관하지 않고 군인들을 계속 보내 우리 진지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전투의 강도가 거세지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연설에서도 러시아가 다시 맹공격에 나서면서 바흐무트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고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진지 방어에 사용될 모든 것들을 적들이 끊임없이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수도 모스크바 인근 등 본토 곳곳에 드론이 출현했다.

안드레이 보로비요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 모스크바 동남쪽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소도시 킬름나에 드론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보로비요프 주지사는 이 드론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간 기반시설물을 겨냥했을 가능

성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이날 오전 브리안스크 지역 상공에서 또 다른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으며 남부 크라스노다르와 아게디아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역 민간시설을 공격하려 해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들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한 석유 시설에서 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전날 저녁에는 드론 3대가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을 겨냥해 건물과 자동차가 경미하게 파손됐고 이 가운데 1대는 아파트 창문으로 날아들었다고 현지 당국이 전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선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 공방 운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로 들어오는 사보타주(고의 파괴 공격) 그룹을 막고 기반 시설 보호를 강화하라”고 연방보안국(FSB)에 지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격책임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한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일부 열차가 탈선하거나 불이 붙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리스서 심야열차 충돌...최소 26명 사망

여객·화물열차 부딪혀 탈선·화재

그리스 중부에서 지난 28일(현지시간) 밤 기차 2대가 충돌해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밤 자정에 근접한 시각에 그리스 중부 테살리아주 라리사 인근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해 일부 차량이 탈선하거나 불이 붙었다.

현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사고로 현재까지 2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사망자를 16명, 부상자를 85명으로 발표했다가 사망자를 추가 집계했다.

소방당국 대변인은 “두 열차의 충돌이 너무 심각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구급차 수십 대가 투입됐으며, 화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근 병원에 비상경보를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인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 당국은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pa 통신은 한 구조대원이 현장의 취재진에게 “대부분 부상자들이 머리가 다치거나 팔, 다리 골절 등을 당했다”며 “불행히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잔해더미 아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객 열차는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를 향하고 있었으며, 승객 약 350명과 직원 약 2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 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다. /연합뉴스

머스크, 두 달만에 다시 세계 최고부자

테슬라 주가 급등 246조원

루이비통 아르노 회장 제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두 달여 만에 세계 최고 부자로 다시 등극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제치고 1위 부자 자리를 탈환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5.5% 상승한 207.63달러로 마감했고, 머스크의 순자산도 테슬라 보유 지분 평가액 급증으로 1천871억 달러(246조6천억 원)를 기록했다.

2위로 밀린 아르노 회장의 순자산은 1천853억 달러(약 244조2천200억 원)였다.

머스크는 작년 12월 중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을 때 최고 부자 자리를 아르노 회장에게 내줬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전기차 수요 부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리스크 등으로 65% 추락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과매도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전기차 가격 인하로 판매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급등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약 70% 상승했고, 최저점인 지난 1월 3일 주가(108.10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올랐다. /연합뉴스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

